

# 시온 주보

제2542호  
2025년 1월 26일(다해)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의 원조 주일)

## 이사야 예언자

우골리노 디 네리오  
(Ugolino di Nerio, 1280-1349)  
1320년대, 목판에 템페라와 금박  
39x25cm,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아일랜드 더블린



## 입당송 |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 제1독서 | 느헤 8,2-4 7,5-6,8-10

## 화답송 | 시편 19(18),8,9,10,15(◎ 요한 6,63ㄷ 참조)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  
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  
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 제2독서 | 1코린 12,12-30<또는 12,12-14,27>

## 복음환호송 |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 복음 | 루카 1,1-4; 4,14-21

## 영성체송 |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  
리라.

##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안승태 요셉 신부 | 창5동성당 주임

이번 주 미사 전례의 독서는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제1독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 사제요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엄숙하게 낭독하는 내용인데,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전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한 구절을 읽으시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주님의 영이 내리시어,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신(루카 4,18-19 참조) 그 사명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리셨기에 당신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25년 정기 회년을 선포하시며, “모든 이에게 이 회년이 우리 구원의 ‘문’(요한 10,7,9 참조)이신 주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때가 되기를 빕니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인

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과 은총의 가시적 표지’인 성사 안에서 이러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강조하십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례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도 현존하십니다.”(56쪽)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체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현존과 사랑,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안고 세상에 파견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에 관한 제2독서 코린토 1서의 말씀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친교를 함께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나누며, 은혜롭고 거룩한 회년, 성년을 지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해봅니다.



### ✍ 이사야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봉독하신 이사야서를 근거로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림에서 이사야는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에 해당하는 라틴어 성경 구절 들고 있습니다. 우골리노 디 네리오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초록옷을 예언자에게 입혀 새로 날 아기를 떠올리게 하고, 이사야의 강직함과 구세주를 향한 분명한 시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화 해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 내가 너를 사막으로 불러내 너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백현실 라우렌시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칠레 선교사

안토파가스타는 아타카마 사막 한켠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막과 바다가 접해 있어 비할 수 없이 아름답지만, 척박한 바위와 흙모래 위에 세워졌기에 낯설고 삭막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 저를 파견하면서 원장 수녀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 마음을 쓰라는 당부였습니다. 수녀님의 염려와는 달리 부드러운 선과 다양한 색깔로 시시각각 변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막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저의 삶은 매 순간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서로 연배가 비슷한 두 분의 칠레 수녀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4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삶의 체험도 비슷하여 일을 할 때나 대화할 때, 하물며 생각하는 방식도 닮아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사도직 활동에서나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를 배려했고, 신뢰로 하나 된 저희 공동체는 더없이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으로 고통스럽기 시작했는데, 이는 제가 두 분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저의 감정을 바라보며 실망과 환멸로 자존감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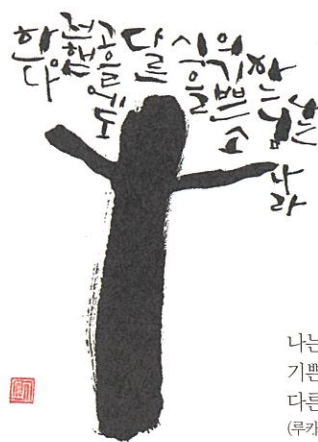
그렇게 밑바닥을 고통스럽게 마주하던 저는 안드레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벨기에 출신 예수회 회원이신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칠레에 파견되어 40년을 넘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 저를 영적으로 동반해 주시길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저의 감정들에 대해 한참을 들으시더니 “수녀님에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소 머뭇거리며, ‘곁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

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이 사막으로 불러내신 건 당신의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지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이 말씀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늘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은 제 방식대로, 제 마음대로 그분을 사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막으로 저를 불러내신 목적은 바로 이 사막에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죄로 기우는 나약함으로 얼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막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기에 침묵과 황량함 속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컷 묵상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루카 4,43)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백근재 도미니코 사비오 |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중등등부 교육부

청소년 시절,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항상 중간 정도여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반장이나 회장 같은 임원도 한 번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키도 체격도 늘 평균 정도를 유지하는 조용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당에만 오면 저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시작한 전례부에서는 그저 앞에 나와 또박또박 기도문을 읽고 내려왔을 뿐인데 큰 칭찬을 받았고, 매주 성당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만 해도 선생님들과 신부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 오면 저를 필요로 하는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빠지지 않고 미사와 주일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성당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했고,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손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학교에서는 반장 한 번 해본 적 없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까지 맡아서 학생회를 이끌고 주일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성당에서나 똑같은 사람인 제가 유독 성당에서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만났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작은 일도 칭찬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저를 주일학교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늘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받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청소년 시기를 많은 추억 속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계기도 그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언젠가 꼭 청소년 친구들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했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성당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당에 오는 친구들을 밝은 웃음으로 따뜻하게 반기는 일로 매 주일을 시작했고, 캠프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설렘으로 온 방학을 성당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당에 오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느끼며, 청소년 시기의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느님께서 제가 내어놓은 것보다 늘 더 큰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이 다시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교사 생활이 어느새 20년을 훌쩍 지났지만, 아직 지치지 않고 교사를 시작하던 첫 마음 그대로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하느님의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더 가득해져서 하느님께 즐거운 음악이 되기를 꿈꿉니다.

#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평화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평화’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어떠한 모습의 평화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해하고 기다렸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해했던 평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리스 신화를 살펴봅니다.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신들에는 올림푸스의 열두 신이 있지요. 하늘과 천둥을 지배하는 제우스,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예언의 신인 아폴로 등이 유명합니다. 신화를 대표하는 신들인 만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보여줄 텐데, 흥미롭게도 평화를 담당하는 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평화’를 담당하는 신은 ‘호라이’라고 하는 여신들 중의 한 명입니다. 제우스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테미스(Θέμις) 사이에서 태어난 ‘호라이’(Οραι) 여신들은 세 명의 자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에우노미아’(Εὐνομία), ‘디케’(Δίκη), 그리고 ‘에이레네’(Ειρήνη)입니다. 그리스어로 표기한 여신들의 이름이 가진 뜻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미스는 ‘법, 질서, 정의’를, 호라이는 ‘시간’을, 에우노미아는 ‘질서’를, 디케는 ‘정의’를, 그리고 에이레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는 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테미스)를 바탕으로 시간(호라이)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원리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에도 질서(에우노미아), 정의(디케), 그리고 평화(에이레네)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은 법과 정의를 바탕으로 질서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루카복음을 보면, 즈카르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루카 1, 77-79) 즈카르야의 노래에 따르면,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을 행하시는 분도,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사뭇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그리스 신화)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복음).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화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용서를 통한 평화’를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부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미사보 꼭 써야 하나요? 왜 남자는 안 쓰는걸, 여자만 써야 하죠?



2024년 평신도 주일, 명동대성당(사진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톨릭교회에서 미사보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개별 성당에서 사목적인 목적으로 착용을 권할 수는 있겠지만, 미사보를 써야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거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규정은 교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현대에도 오해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미사보를 여성만 쓴다는 점에서, 미사보가 여권 신장의 가치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니깐요.

실제로, 미사보의 시작에 ‘여성’에 국한되는 문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레베카의 사례만 봐도 그렇죠. 남편이 될 이삭이 가까이 오자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창세 24,65 참조)는 미사보의 시작에 면사포와 비슷한 문화적 맥락이 있었음을 추정케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가리거나 혹은 머리에 쓰던 것을 벗는 행위는 ‘남녀 상관없이’ 거룩함을 마주하는 경건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탈출 3,6)는 구절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

로 나와 섰다.”(1열왕19,13)고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초대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남성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관습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께서 그렇게 요청하셨죠. 그러나 이는 남녀 간에 차이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코린토1서 11장 4, 5절에 해당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사도께서는 이 모든 실천이 하느님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보를 쓰는 것과 모자를 벗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온전히 하느님을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사도의 말씀은 미사보가 당시의 그리스도교 풍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닙니다. (미사보 착용의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풍습을 반영한 것인데, 현재 유대교는 다시금 변화가 생겨 남성들도 머리에 키파를 씌으로써 무방비 상태에서 하느님의 보호에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이유로, 20세기 들어 미사보를 더 이상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성만 쓰느냐 남성도 쓰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점은 미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미사보를 썼다고 하더라도 온통 분심으로 미사 시간을 다 보낸다면, 하느님 앞에 나왔음을 되새기는 미사보의 의미가 무색하겠지요. 동시에, 미사보를 거부하고 현대적 의미만 새롭게 하겠다고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도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1월 26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며, 하느님 말씀을 성찰하고 전파하도록 이날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오늘(1월 26일)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2003년부터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 1월 29일(수)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날은 설날 미사 경문으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길 토마스 신부님 선종

우리 교구에서 활동하셨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길 토마스(Thomas Gerald Cleary) 신부님께서 지난 1월 9일 호주 멜버른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길 토마스 신부님은 1944년 아일랜드 메요에서 출생하여 1969년에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동문성당(제주교구), 서귀포성당(제주교구), 화양동성당(서울대교구), 영국지부·미국지부 가톨릭센터와 선교 후원 홍보, 상계동성당(서울대교구), 상대원성당(수원교구), 오세아니아지부 호주 멜버른 골롬반 집의 하우스 매니저, 선교 후원 홍보, 본당사목 협력으로 사목하셨습니다. 1월 13일, 호주 멜버른 에센든 골롬반본부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거행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1년 1월 28일 이상훈 리노 신부(84세)
- 2022년 1월 31일 김성태 요셉 신부(82세)
- 2023년 1월 28일 송재영 야고보 신부(49세)
- 2024년 1월 28일 전진 세례자요한 신부(43세)

##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목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2월 2일(주일)은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 2025년 정기 회년

예수님께서 '은총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루카 4,19 참조) 또한, 최후의 만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교회는 이를 성지순례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많은 초대 교회 신자들은 회년을 기렸던 구약의 전통에 더하여, 신약의 성지순례 및 참회의 관습을 모두 수용한 신약의 회년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회년의 주요 요소는 참회와 순례와 (전)대사입니다.

**참회:**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회년을 기념하며 "(회년을 통해) 인간은 그 내부에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년을 맞아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회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순례:** 교회는 자신을 순례하는 교회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교우들은 회년에 순례를 이어갑니다. 순례는 대사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성지를 향해가는 과정을 체험하며,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사:** 회년에 교회가 제시하는 순례를 하고 기도를 바치면 잠벌을 면제받는 대사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건을 맞추고 상품을 수령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대사는 참된 회개, 참회와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회년은 한해 전 12월 24일에 4대 대성전(성베드로 대성전, 라테라노 대성전, 성바오로 대성전, 성모마리아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문을 여는 예식은 구원의 세례수가 터져 나옴을 의미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년도 마찬가지로 24년 12월 24일에 시작하여 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를 선포하시며 "신앙인들은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과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갖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24년 12월 29일에 명동대성당에서 회년 장엄 개막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청 교령에 따라, 우리 교구가 정한 기간 중, 정해진 방법에 따르면 대사가 수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기획연구팀에서 제작한 회년 책자(<https://bit.ly/회년책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특별 현금 모금 현황(2024년 하반기)

2025년 1월 8일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모금 일자	특별 현금	참여 본당	금액(원)	지급처
6월 23일	북한형제돕기(민족 화해)	202	447,387,650	민족화해위원회
6월 30일	교황주일	224	522,079,77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월 22일	헌미현금	225	581,295,62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0월 13일	군인주일	224	655,746,754	군종교구
10월 20일	전교주일	224	595,116,823	교황청 전교기구
11월 10일	평신도주일	225	490,522,250	평신도협의회 (서울평협 80%, 전국평협 20%)
12월 1일	국군 장병과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219	517,471,780	군종교구(50%) / 교정사목위원회(35%) 경찰사목위원회(15%)
12월 15일	자선주일	226	653,435,430	사회사목국(행정실) 1억 + 사회복지회(잔액)
계			4,463,056,084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전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전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본당, 교구청 부서, 단체, 산하 기관은 개인 및 기업에서 받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3④, 법인세법 제112조의 2④)

### ② 기부자 변경 불가

기부금 수납 현황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중여세, 소득세 과다 공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③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양업체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2025년부터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교구청에서 자료를 송부하여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④ 기부금 지급 지침

기부금 관련 상세 사항은 2025년도 본당 예산관리 지침(p.13 기부금발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구청 알림

###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3월 24일~4월 4일(11박 12일) / 지도: 김상우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레사

### 청년 환경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2월 8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3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제138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문의(신청): 02)727-2431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2월 28일까지)  
때: 3월 10일~5월 12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 참조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설연휴 휴관: 1월 28일(화)~30일(목)  
다음 전시 일정: 2월 14일(금)~23일(일)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 2025 오경의 역사적 배경 02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연: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 31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내용: 구약 법전의 발전과 오경의 완성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터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2월 9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2월 10일(월) 13시30분~16시30분

### 민족화해위원회 청년평화감수성 피정 모집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청년(만 20세~39세 미만) 30명  
내용: 환대, 평화감수성교육 / 회비: 5만원  
때: 2월 15일(토) 13시~16일(주일) 14시(1박 2일)  
곳: 샬트르수도회 성바오로 피정의집(경기 사옹)  
문의(신청): 010-4682-2412 (문자신청-참가안내품 발송)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1) 임신부와 태아의 희년(태이축복식)  
대상: 임신부, 남편, 가족 등 250가정  
때, 곳: 3월 30일(주일) 13시30분, 명동대성당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02)727-2354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어른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자연주기법(NFP) 교육 17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자연주기법을 배우고 싶은 개인, 부부 /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  
때: 3월 13일~5월 29일 매주(목) 20시~21시30분(총 10주)  
강의방식: 온라인(Zoom) / 모집마감: 3월 7일(금)  
문의(신청): 02)727-235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수료 인정 프로그램  
3) 참생명학교(생명윤리) 기초 교육 8기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때: 3월 14일~5월 9일 매주(금) 20시~21시30분(총 8주간)  
모집마감: 3월 7일(금) / 회비: 5만원  
문의(신청): 02)727-235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2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2월 27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성시간, 성체현시, 성체거동, 안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때, 곳: 제134차 2월 14일(금)~22일(토),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 / <http://hsosb.or.kr>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젊은이 해외(인도네시아) 선교체험**

대상: 만 18세~39세 미혼 남자 남녀 / 문의: 010-5715-1702  
 아씨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젊은이 사도직  
 때, 곳: 6월 25일~7월 2일(7박8일), 인도네시아 메단

**2025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http://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78차	3월 19일(수)~31일(월) / 회비: 550만원
79차	6월 10일(화)~22일(주일) / 회비: 560만원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소록도	2월 25일~26일, 3월 25일~27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5월 14일~25일(KE)
홍성남 신부와 도교	3월 10일~14일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각 날짜별로 접수 받습니다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수요 피정	3월 26일, 4월 30일, 5월 28일, 6월 25일 19시~21시(20시30분 미사)
토요 피정	3월 8일, 4월 12일, 5월 10일, 6월 14일 10시~15시30분(15시 미사)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2월 14일(금)~16일(주일)	김선태 주교(전주교구)
3월 14일(금)~16일(주일)	서상범 주교(군중교구)
4월 17일(목)~20일(주일)	성주간 피정(기도학교)
5월 16일(금)~18일(주일)	전현호 신부(대구교구)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2월 14일(금)~15일(토), 3월 8일(토)~9일(주일)
3박4일	2월 17일(월)~21일(금), 4월 5일 2월 26일(수)~3월 1일(토)
8박9일	신학생 일반 2월 3일(월)~11일(화), 3월 13일(목)~21일(금)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2월 15일(토), 해미성지·덕산순교성지(대전교구) / 문의: 010-3080-9104 (사전 접수 필수)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2월 1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서울대교구 청년성령 피정(청년성령쇄신봉사회)**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때: 3월 1일(토) 10시30분~2일(주일) 16시(1박2일)  
 회비: 8만원 / 문의: 010-2672-9604 팀장 카톡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DM: @ruah.fiat

**2025년 대희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지향: 나라, 교회, 가정, 나의 성화를 위하여  
 매일 오전: 묵주기도 20단  
 매일 오후: 봉헌 기도(강의·기도·파견미사)  
 때, 곳: 1월 22일~2026년 1월 5일(총 10차) 1차 1월 22일~2월 23일·감사 피정 2월 24일, 지혜의 샘(주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 문의: 010-3248-9705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포함 2월 7일~9일·2월 21일~23일·2월 25일~27일, 3월 1일~3일·3월 8일~10일·3월 13일~16일(추차도)·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추)·3월 29일~31일·4월 1일~3일·4월 5일~8일(추)·4월 10일~12일·4월 14일~16일·4월 25일~27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때: 한라산 포함 2월 8일~10일·2월 14일~16일·2월 22일~24일, 추차도 포함 성지순례 3월 1일~4일·3월 9일~12일·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3월 22일~24일·3월 28일~30일, 4월 2일~4일(추)·4월 7일~9일·4월 22일~24일·5월 10일~12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성물·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http://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시스티나 음악원 수강 모집 / 문의: 010-9842-8818**

성가 발성 교실, 그레고리오 성가(지휘·반주·기초)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http://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신난다 첫영성체교리' 교사 연수**

때: 2월 8일(토)·9일(주일) 13시~18시  
 곳: 생활성서사(전철 4호선 수유역 근처)  
 회비: 2만원 / 문의: 010-7273-5983 생활성서사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51기 1단계 개강**

때: 3월 10일(월) 10시·3월 19일(수) 19시  
 곳: 가톨릭회관 527호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21시20분 (15주) /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http://caff.kr/academy))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6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월 14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듦,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려는 프로그램 / 문의: 010-7451-9707  
 대상: 60세 이상 / 회비: 100만원  
 때, 곳: 3월 17일~26일·4월 21일~30일·5월 12일~21일·6월 9일~18일(10일), 강원도 홍천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탈리아어 강좌**

3월~4월 봄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3월 4일(목)~8일(토) 강좌별로 상이함  
 회비: 정규반 32만원(문법·회화 / 주2회 8주, 총 30시간), 주말반 20만원(주1회 8주, 총 16시간)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cc.sogang.ac.kr>)

**상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곳: 의정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대회의실 카페(<http://cafe.daum.net/c-sjr>) 참조  
 문의: 031)874-6272 상장례학교

봉사자반	3월 8일~5월 17일 매주(토) 9시~18시(10주)	50명
자격증반	3월 8일~11월 1일 매주(토) 9시~18시(30시간)	30명

**2025년 살레시오수녀회 영성사목 프로그램**

곳: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 / 문의: 010-3866-2248

성경속 여성 영성강좌	매월 둘째주(화) 10시~13시
살레시오 예방교육(신앙과 자녀교육)	매월 셋째주(화) 19시30분~21시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 모집기간: 2월 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모집**

**베이투스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 문의: 010-3709-7956  
모집인원: 파트별 1명 / 대상: 성인 남성(시니어 환영)

**도미니코 평신도(재속회) 회원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 성인 남녀 / 문의: 010-2266-5866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모집**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청회' 검색 후 문의 또는 전화·문자(010-3098-2192) 문의

**무반주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라서울합창단 단원 모집** / 문의: 010-9464-0680

대상: 세례받은 만 55세 이하 남성(테너, 베이스)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 명동성당 또는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회원 모집** / 문의: 010-9098-6765, 010-4189-8396  
하느님을 사랑한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 교우 / 3월 14일까지 접수

**서울대교구 오라시오 합창단 남성단원 모집**

성가로 하나되는 합창단 활동을 통하여 제2의 삶을 의미있게 봉사하기 원하는 시니어 남성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3763-8681 단장 / 대상: 55세 이상 가톨릭 신자 / 연습: (금) 14시

**미사**

**김수환 추기경 선종 16주년 추모미사**

집전: 구요비 주교 / 문의: 02)727-2508 (재)바보의나눔 / 때: 2월 16일(주일) 12시, 명동대성당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2월 1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 때: 1월 31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 때, 곳: 2월 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월 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 주제: 강신구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 강론: 김진철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곳: 천릉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익산 성클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 010-6680-0692 /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 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실습생 1만원) /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http://www.karf.co.kr) /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상담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http://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청소년활동 지도(활동운영팀) / 2월 16일(주일)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http://hanmaum84.com)) 참조

**구산성지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 / 문의: 031)792-8540 사무실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 / 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본당 주임 신부님 추천서, 교적 사본 외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종로구)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2월 2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mailto: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http://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tr@catholic.or.kr](mailto:cpht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마케터	도서 및 콘텐츠 기획·마케팅
편집국	전문 편집, 북디자인 및 기타 편집디자인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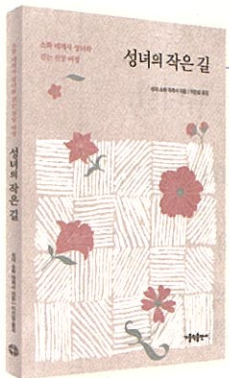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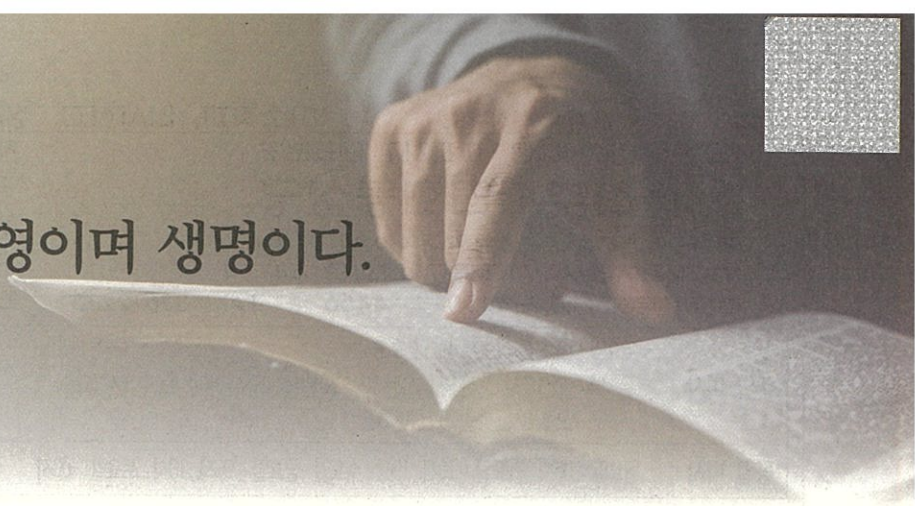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2025년 1월 추천 도서

##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요한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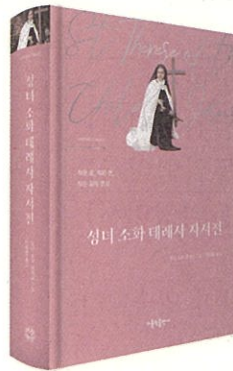
신간

### 성녀의 작은 길

성녀 소화 데레사 지음 | 1만4천원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걸어난 성녀의 신앙 여정

사랑과 비움의 영성으로 '작은 길'을 걸어난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 모음집



가톨릭클래식

### 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

성녀 소화 데레사 지음 | 2만원

어린 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한 데레사 성녀의 고백

믿는 이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가톨릭 고전 필독서

## 말씀으로 여는 하루, 가톨릭출판사 365일 일력



가톨릭 고전 속 지혜의 말씀을 만나다

### 가톨릭 고전과 함께하는 365 말씀 묵상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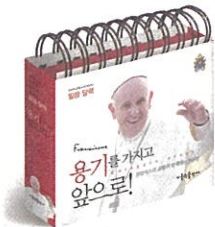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만6천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만년 교리 달력

### 하루를 시작하는 한 줄 가톨릭 YOUCAT 달력

YOUCAT 재단 지음 | 1만6천원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365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1만3천원



김수환 추기경 365일 말씀 달력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김수환 추기경 지음 | 1만3천원



이해인 수녀가 매일 보내는 작은 위로의 시 모든 순간이 다 꽃으로 필 거예요

이해인 지음 | 1만2천원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http://www.catholicbookplus.kr)

구입문의  
02) 6365-1888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li> </ul>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지!”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1월 28일(화)	오전 6시 (평일미사)
1월 29일(수)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1월 30일(목)	미사 없습니다.

\* 설날 당일 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 후 연도) 오전 9시, 11시미사 (미사 전 연도)

● 1월 28일(화), 30일(목)은 사무실 휴무입니다.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주일)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교중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9,000원	4,0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6일(주일) 오늘까지

● 성모신심미사 : 2월 1일(토) 오전 10시

● 연령회 미사

일시 : 2월 4일(화) 오전 10시

매일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세계 병자의 날 미사 안내

2월 11일(화) 미사는 환우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2월 18일(화) 오전 10시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2월 13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월 25일(토) 오후 3시 ~ 26일(주일)

가격 : 떡국떡(1.5kg) 10,000원/만두(김치, 고기) 15,000원

● 2024년 결산보고서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6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 1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9	296 (14.7%)	212 (10.6%)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남인수 스테파노 상가 ..... 오십만원

● 감사헌금 (1월 13일~19일)

이정우	.....일십만원	김일영	.....일백만원
익명	.....일십만원	정예자	.....이십만원
김희진	.....오만원	오윤미	.....삼만원
김화진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주일)

교무금 ..... 12,293,000원

주일헌금 ..... 6,259,400원

입당	21	봉헌	216,218,212	성체	157,153,501	파견	31
----	----	----	-------------	----	-------------	----	----



주님 -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